



Feature articles

2008 육계산업 부문별 우수 업체 동물약품

췌! 조용한 해결책, '에비뉴'

MERIAL 메리알코리아(주)

○ 뉴캐슬병 예방 생독 백신인 에비뉴는 1991년 10월~11월 2달 동안 국내 야외 및 실험실 시험을 통해 국내 병원성 야외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 시험을 거친 후 정식으로 국내에 등록이 되었으며, 우수한 방어력을 나타내면서도 부작용의 발생은 적었기 때문에 국내 런칭 시 짧은 시간 안에 판매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다. 그 후 1995년부터 14년 동안 부동의 판매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에비뉴 기원 및 개발

조지아 대학 조류병리학과와 빌리게스(Pedro villegas) 박사와 글리슨(John Glisson) 박사가 건강한 칠면조의 분변에서 뉴캐슬병 바이러스를 발견 후 그들의 이름을 따서 VG/GA 독주(strain)라 명명했다.

이 백신주의 가장 큰 특징은 두 종류의 장기 친화성 백신주(Sub-population)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백신접종 후 개체내에서 한 백신주 그룹(population)은 호흡기도, 다른 백신주 그룹(population)은 장관내에 존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호흡기도에 증식성이 높은 B₁, Lasota 백신주들과는 대조적인데, 이러한 에비뉴의 이중 증식 성질(Dual replication tropism) 때문에 VG/GA 독주가 최소한의 호흡기 부작용으로 훌륭한 방어력을 제공하게 되며, 분무 뿐만 아니라 음수, 점안 등의 방법으로 접종해도 무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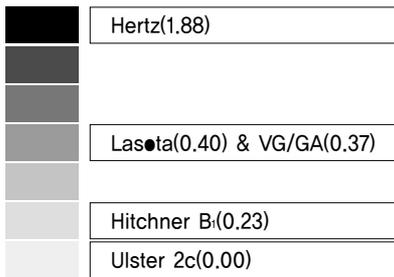
이후 롱메리유(프랑스)와 셀렉트(미국)에서 위의 VG/GA 독주를 뉴캐슬병 백신으로 개발하여 '에비뉴' 라고 명명했다.



에비뉴의 독력

백신주의 병원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 ICPI 수치인데, 이 수치는 병원성이 0에서 2.00까지 범위에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비뉴(VG/GA 독주)의 ICPI는 0.37로서 Lasota 백신주와 유사한 수치를 갖는다. 그 의미는 병원성이 Lasota 백신주와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병원성은 백신의 효능부분과 관련성이 매우 높다.

<표 1> ICPI(대 내 병원지수)



<표 2> 백신접종 후 강병원성 뉴캐슬병 바이러스(정원주) 공 에 대한 방어력 시험(건국대 수)

분	여용	항체역가(14)	사수	방어 (%)
Unvaccinated Control	-	4.8 0.6	10/15	33
Ulster 2C(W)	10 ^{6.2}	4.0 1.0	7/15	53
Ulster 2C(C)	10 ^{6.9}	3.9 0.9	2/15	87
NDV 6/10	10 ^{5.5}	5.2 0.9	9/13	31
VG/GA(에비뉴)	10 ^{6.0}	4.1 0.8	1/14	93
V4	10 ^{6.2}	4.9 0.8	3/14	79
B1	10 ^{6.3}	4.7 1.0	2/14	86
Lasota	10 ^{6.3}	4.9 0.7	2/14	86

※ 에비뉴는 방어력이 93%로 국내 백신 중 가장 뛰어나다.

에비뉴는 효능은 뛰어나고 호흡기 부작용이 없어 부화장 및 육계농가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그러나 많은 육계농가에서 사용하는 만큼 육계용 백신이란 오해를 받아왔다. 현재 경상도 지역의 다수 산란계 대군농장에서 방역프로그램에 따라 에비뉴를 분무하고 있으며, 필드에서 방어력도 Lasota그룹의 백신과 같은 것으로 느끼고 있다.

지금까지 에비뉴는 육계용 백신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산란계, 종계 접종에도 문제가 없음을 반증하며, 앞으로 뉴캐슬병 백신 접종 후 호흡기 클리닝으로 인한 과도한 항생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서라도 산란계, 종계 농가에 에비뉴 접종증가가 기대된다.

☎ 문의 : (02)3478-2882